

뇌 종합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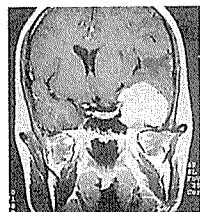
어떤 경우에 뇌 종합검진을 받아야 하나.

평소 건강하고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않는 경우라도 어떠한 질환을 가지고 있을수 있다. 뇌를 포함한 중추신경에 있어서도 예외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의 질환중에도 질병의 상태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야만 약간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뇌질환중에 대표적인 뇌졸중(중풍)은 평소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도 갑자기 나타나서 영구적인 신체장애를 일으키거나 생명을 빼앗아가는 질병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런점들을 감안하여 볼 때 평소의 뇌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도 뇌 종합검진이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평소에 두통, 구토, 어지러움, 팔다리 마비증세, 시력장애, 언어장애, 기억장애나 간질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뇌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을 많이 시사하고 있으므로 뇌속에 있는 신경조직과 뇌혈관 계통의 이상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는 뇌에 대한 종합적인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외에도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치매환자를 사전에 진단하는데에도 뇌 종합검진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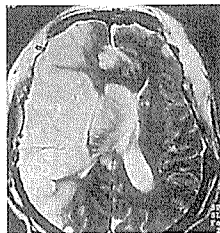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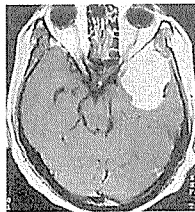
1. 뇌 자기공명 혈관촬영(Brain MRA)

본 검사는 뇌의 신경조직상태와 뇌혈관 상태를 보여주는 검사방법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정확한 최첨단 뇌의 진단방법으로서 종래에 실시해 오던 뇌 컴퓨터 단층촬영이나 뇌 자기 영상보다 더 발전되고 안전한 검사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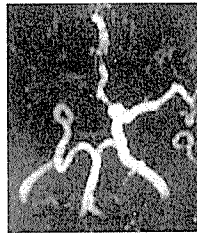
특히 뇌에 생긴 뇌종양(암),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증, 뇌출혈, 뇌혈관기형, 모야모야병, 뇌에 물이 차는 수두증, 뇌의 선천적기형, 뇌위축 및 치매의 원인질환을 밝히기 위해 매우 유용한 검사이다.



뇌종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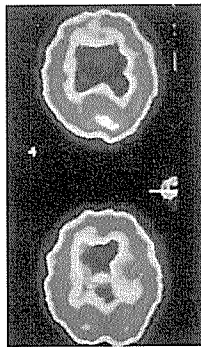


뇌경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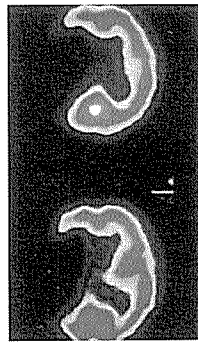


2. 뇌 혈류측정검사(Brain SPECT)

혈관내에 방사성동위원소를 주사한 후 뇌를 단층으로 촬영하여 뇌혈류의 많고 적은 부위를 찾아내는 검사로서, 뇌혈전이나 뇌색전증 또는 모야모야병등으로 뇌혈류가 감소하거나 차단될 때 어떤 혈관부위에 뇌혈류가 이상이 있으며, 이런 경우에 어떤 치료가 도움을 줄지 알아내는 검사입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Diamox라는 혈관확장제를 같이 주사하여 뇌혈류의 예비량까지도 검사할 수 있다.



◀ 정상



▶ 뇌경색

3. 뇌파검사 (EEG)

뇌의 전기적 활동상태를 그래프로 그려 뇌의 이상 유무를 밝히는 검사로서 의식소실을 동반하거나 혹은 의식소실이 없는 경련성 질환(간질)에 있어서 대단히 유용한 검사이지만, 때로는 뚜렷한 경련증상을 발견할 수 없으면서도 계속적인 두통이나 팔다리에 이상감각을 느끼는 경우, 혹은 갑작스럽게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경우에 뇌파검사를 실시하여 보다 정확한 경련성 질환을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